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8.09.(제3766)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사람 낚는 어부

생기 없는 바다에 가볍게 찰랑이는 물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 무게감 없는 그물.
어부들은 숏빛으로 물든 새벽하늘을 배경으로
해변에 홀로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네

그분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비로소 깨닫네. 그동안 텅 비어있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주님 없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이제 가득 찬 그물(만선)은 아무것도 아니니,
해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네.

- 앤드루 로이크로프트 (Andrew Roycroft) -



기 독 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 임 목 사 권 오 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11주
(광복기념주일)

집례: 권오진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 입 레 송... 524장(1,3절)...다 같 이
※ 예배의부름.....집 레 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 105:2)

※ 경 배 찬 송..... 28장 다 같 이
※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좇으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 교 독 문... 100번(나라사랑 2)...다 같 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
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 영 광 송..... 5장 다 같 이

이 천지간 만물들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 도.....이평식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강승균 집사

구 약 | 시 편 16:1-2

신 약 | 누 가 복 음 5:1-11

찬 양... 내가 산을 향해 ...찬 양 대
눈을 드니

증 언.....권오진 목사

『 만선보다 귀한 만남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 복 의 선 언.....담임목사

※ 후 주.....반 주 자

※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모임

다음 주: 남녀 선교회 월례회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6	영 아 부	7
주 일 2 부 예 배	274	유 치 부	12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7	유 초 등 부	23
첫 단 추 기 도 회	93	중 · 고 등 부	34
여선교회특별성회	146	청 년 부	15
성회실시간방송예배	28	예 수 소 망 반	26
금 요 성 령 집 회	52	생 명 의 삶	방학
금요일시간방송예배	27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703	합 계	117

현 금			
주 일 현 금	2,009,000	감 사 현 금	2,970,000
교회학교현금	193,000	생 일 현 금	70,000
월 정 현 금	3,520,000	선 교 현 금	20,000
십 일 조	8,265,000	특 별 현 금	380,000
합계 17,427,0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디도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8월 12일(수)10:30, 송호준 전도사

어? 성경이 읽히지네!
신약 4과

본문: 누가복음 6장 12-19절

- 금 주 기 도 : 이미옥 권사
- 다음주기도 : 김규례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8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선옥 구용연	김진태 이미옥 이재화 홍석은 오정규 조은지
안내위원	이해순	
강단헌화	고광섭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나무에서 내려와 꽃으로 피어나다”

구 약 이 사 야 43:1

신 약 누 가 복 음 19:1-10

설 교 : 권 오 진 목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바라봐 주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의미 없던
존재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시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재탄생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온 은혜의 과정을 본문 구절들을 함께 읽으며 그의 삶의 변화를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둘째는 예수님과 만났을 순간,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삶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만져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각자의 영혼에도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가 처해 있던 상황과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풍요로운 상업도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2절 원문에는 ‘이두’, 즉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읍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의롭다’, ‘정결하다’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름값 못 하는 삶, 그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척의 문제와 더불어 그에게는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가 물질에 집착하고 부를 쌓아간 그 내면에는 그의 약점을 덮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자기보호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돈이 그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신적인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세리장이고 부자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속으로는 더 심한 열등감과 외로움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내 깊은 열등감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부와 권력이라는 자기방어의 벽을 세우며, 돈과 명예라는 우상을 의지하며 버티는 삶. 아무리 물질로 포장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허무함은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3절의 ‘보고자 하다’라는 단어는 헬 라어로 ‘제테오’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쳐다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파헤치듯 간절히 구하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달려 올라간 것은 단순한 도피나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겠다, 저분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한 내 인생의 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삭개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예수님과 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 이르러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어이, 세리장!”이라거나 “거기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그분의 입술에서 삭개오의 진짜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후반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은 그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지만, 주님은 창세 전부터 기억하고 계셨던 그 존귀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명령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올라간 삶의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와 주님 발 앞에 설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며 수군 거렸습니다. 세상은 늘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십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며 찾아내야 할 존귀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과 만남이 삭개오의 상처받은 마음을 눈 녹듯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실까요.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맛보고 나자, 삭개오의 삶에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 터져 나오는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율법의 기준(20% 배상)을 훨씬 뛰어넘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전까지 삭개오에게 돈은 목숨이었고, 자신을 보호해 주는 유일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참 은혜를 맛보자, 그토록 움켜쥐었던 돈이라는 우상이 일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만을 위해 꼭 움켜쥐던 손을 펼쳐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삶, 소외된 이웃들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삭개오의 삶에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9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세상은 그에게 ‘죄인’이라는 라벨을 붙였지만, 주님은 그를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정체성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의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고,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열등감과 상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은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약점도, 사람들의 무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때조차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상은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더 성공하라고, 더 인정받으라고, 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네가 몸부림친 것 다 안다.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그만 애쓰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 방법으로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네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낙인과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 내가 우상처럼 붙잡고 살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신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초대하십니다. “힘들지 아무개야. 이제는 그만 내려오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도록 나를 네 삶에 초청하지 않겠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속에 초청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 한분 한분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꽃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또 다른 삭개오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앞서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고 다그치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많이 힘들지. 예수님께 내려오렴. 아빠 엄마는 네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올라가다 지쳐가는 수많은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올라가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려오라. 그분 안에 거하면 충분하다”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소중한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아헌중앙 공동체 안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예수님의 꽃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권혁성 손양민) (김준수 최희성) 박기순 (박범택 윤옥희) (신중우 김영미) (허종수 강명희) (강민구 하은혜) (김명중 장계순)
김민희 노선우 노현우 (박창환 조영신) 서성옥 손세운 송동우 송동현 (신일철 이태영) 신재신 원해옥 이정희B (이성호 강숙희)
(이용학 백현애) 이진경 이진숙 장은숙 (조규성 정미애) 조순임 조해자 (차상옥 석진숙)

월 정 헌 금 김준자 (강성배 박봉주) (김광선 김영중) (김상진 이수미) (김영숙 유하동) (김종근 이연석) (노정훈 안명숙) 박석순 (박정화
조인자) 박현중 (손희열 윤순례) (송양근 조혜선) (신영수 유경순) (신웅식 최진여) (염봉진 곽동경) 유명순 유영순 유운자
윤희열 이경애 (이능하 김기열) (이동현 이은주) 이성주 이인숙 이찬주 (장재혁 이은영) (정성규 심성희) (조성규 권은정)
(최은규 장미자) 태복수 홍완숙

감 사 헌 금

(권오진 조고은) : 한 주간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신앙활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강현중 김숙자) :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준수 최희성) : 주님! 사랑과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주 앞에 나오게 하소서.

서태희 : 자녀들의 해외여행길에 동행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강민구 하은혜) : '루디아 모먼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정희 :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건강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출퇴근길에 핸들
을 주님이 꼭 잡아주세요. 이 나라 민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길경은 :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김명중 장계순) :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김선옥 구용연) :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연옥 :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의경 여혜순) :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선우 :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노현우 :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주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합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배덕천 김유임 성진) :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동행하옵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손희열 윤순례) :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안명숙 :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원해옥 : 항상 감사합니다.

유경순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해자 :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기범 차진영 훈민)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실 황문연) :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진숙 : 아들이 안전하게 아국땅에 잘 정착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예배드리며 감동받게 하시므로 더욱 견고한 믿음
으로 진보하여 감사의 영성으로 살게 하소서!

이한나 : 생일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 살게 하소서.

임현정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진용 김고운 장서윤) : 차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인자 : 故박송배 권사 12주기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산소에 잘 다녀왔습니다.

(조일현 조운정) : 주님 감사드립니다. 일현, 윤정이의 미래를 동행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형준 김미경 은서 은희)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채상식 김자은)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은규 장미자) :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 장소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 명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 교 헌 금 노정훈 이진숙

생 일 헌 금 노선우 노현우 이한나

특 별 헌 금 사회평신도국 강단현화 고광섭 (노정훈 안명숙)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지난 주간 여선교회 특별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목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 총 목자모임 : 오늘 오후 2시,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2026년도 2학기 장학생 후보 신청접수 안내 :
 - 1) 대상 : 아현중앙교회 교인 및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신청 가능 대상자(교회 홈페이지-소식/교제-아현중앙소식)
 - 2) 제출기간 : 오늘 오후 3시까지 도착 분
 - 3) 신청 및 문의 : 교회 홈페이지, 오석만 목사
- 전교인수양회 참가신청 : 9월 5일(토) ~ 6일(주일) 가평우리 마을에서 “위드(WITH)2026”라는 주제로 있으며, 오늘 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회비 : 2만원)
- 제자양육반 <생명의 삶> 제3기 수강 신청 안내 :
주중반(수요일, 9월 9일 개강) 저녁 7-9:30
주말반(토요일, 9월 12일 개강) 오전 10-12:30
9월 9일(수)까지 교회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2만원, 총 13주 과정)

■ 모임안내

- 한나목장 : 오늘 12시 4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감사 : 제5남선교회 주관 봉사자 친교의 밤을 후원해 주신 장로회, 제7남선교회, 서태희, 김수미 장로, 김진태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후원해 주신 장로회, 총여선교회, 서태희, 구본수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국내선교)를 후원해 주신 김정희 홍석은 유은종 김현주 권사, 이영호 정혜미 집사, 김서령 장의주 부모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청년부 여름수련회(국내선교)를 후원해 주신 장로회, 제6여선교회, 조영익 홍영기 장로, 석진숙 신일철 이태영 추화순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

청년부 8.21(금) - 8.23(주일) (국내선교)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23일(주일)
- 정기 기획위원회 : 29일(토)
- 나눔콘서트 :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대예배당

■ 금요성령집회(8월 14일)

찬양	익투스 찬양단
설교본문	출애굽기 14:5-16
설교제목	주께서 싸우시리니
설교	권오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8월 16일)

대표기도 조상현 장로

■ 주방봉사

- 이번 주 : 3초원
- 다음 주 : 2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담임목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련목회자 송호준
- 전도사 박지연
- 교육전도사 서지수

- 소속목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가지회 김정희 김병일
- 반주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